

##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노 경 란 방 회 정<sup>†</sup> 조 혜 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애착특성 중에서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애착유형에 따라, 그리고 성별차이에 따라서 대인관계 양식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연구로 성인애착유형과 관련된 여러 애착검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범주 애착유형모델을 애착유형검사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남녀들에게 부, 모 애착척도, 4범주 성인애착유형척도와 관계적 자아검사(Relational Self Scale)를 실시하여 이원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애착유형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 공감배려와 긍정경험을 많이 하고 관계회피를 적게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부,모 애착안정성과 애착유형과 같은 성인애착특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대인관계에서는 부, 모 애착안정성과 애착유형의 주효과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관계표현과 패턴이 달라짐을 암시한다. 연구결과는 애착과 관련된 심리발달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 대인관계 양식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대상이나 상황과 같은 맥락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모 애착안정성, 성인애착유형, 성차, 관계적 자아, 대인관계양식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Email : hjbang@ewha.ac.kr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상대방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며 친밀감을 경험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반면, 효율성, 유능성, 편리추구가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Tice와 Baumeister(2001)에 따르면, 인간은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는 자기(self)의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동기라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이 관계를 맺는 양식, 즉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관계가 어긋나기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자신의 목적달성만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외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인관계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인의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Bowlby(1982)와 같은 애착이론가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성인기에도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과정과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대인관계 양식은 다르다고 지적해 왔다(Cross & Madson, 1997). 어떤 요인들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관계양식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발달적인 관점에서 성인들의 애착 요인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별요인에 따라 대인관계 양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

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애착이론 관점에서 본 대인관계

애착이론은 초기 관계 경험이 성인관계에 원형을 제공한다는 프로이드 정신역동이론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애착이론이란 타인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려는 성향을 인간 본성으로 보며, 유아는 부모나 주 양육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착되도록 생물학적으로 타고난다고 믿는다. Bowlby(1982)는 행동생물학과 통제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대상관계이론에 기반을 둔 애착이론을 개발하였다. 그가 애착이론을 개발할 때 목표 중의 하나는 관계와 초기 경험에 관한 프로이드의 천재적인 통찰력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재조명하여 그러한 통찰력들을 어느 정도 보존하려는 것이었다(Waters & Beauchaine, 2003).

Bowlby(1982)의 애착이론에 영향을 준 이론들을 간략히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은 아동과 부모 사이의 관계와 같은 초기경험과 관계가 심리발달과 성인의 행동에 중요하며 지속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개인의 내적인 역동을 강조하며 심리성적 발달단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Erik Erikson(1959)과 같은 신프로이드 학파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심리발달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과 대인관계 역할에 더 초점을 두었다. 이후 신프로이드 학파의 이론들은 아동들을 직접 관찰하면서 추동보다는 대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대상관계이론과 자아심리학의 기반이 되었다. 대상관계이론은 영국에

서 Klein(1946), Fairbairn(1952), Winnicott(1965)를 중심으로 발달되는 한편, 미국에서는 Kernberg(1982), Kohut(1971, 1984)등이 대상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이정태, 2002). 대상관계이론가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인간 성장의 중심에 놓으며, 특히 첫 번째 주 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정신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상호작용의 틀로 내면화되면서 실제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초기의 관계 형성이 미래의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아감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고전이론이 되는 반면, 현대 정신역동 이론은 대상관계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 기초를 둔 Bowlby는 초기 관계 경험이 이후 성인관계에 원형을 제공한다는 프로이드의 통찰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아가 의존적이고 결핍된 존재라는 프로이드의 관점 대신에 영아를 능력있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 존재로서 대치하였다. 또한 Bowlby는 프로이드의 추동 감소라는 동기이론 대신에 통제체제이론을 채택하여 영아의 행동을 좀더 조직화되고 맥락에 민감하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애착이론과 자아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밀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출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 인간이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의존적인 인간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해간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애착이론과 자아심리학에서는 출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간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이삼연, 2000).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insworth(1978)는 낯선 상황이라는 고도로 조직화된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을 하여 안정형, 저항형, 회피형으로 애착을 유형화하였다. Bowlby(1988)와 Ainsworth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이 그 이후의 대인관계에 원형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발달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줄 수 있게 된다(Buhrmester & Furman, 1987). Bowlby(1988)에 따르면, 전환기인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정기저’로 남아 있다가 위협을 느끼거나 고통을 받을 때 애착체계가 재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의 애착연구는 인지능력의 발달로 행동 관찰기법보다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타당도가 입증되어왔다(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과 Greenberg(1987)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사용하여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정서적인 혼란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성인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성인 애착유형 측정도구의 발달로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연인들의 상호작용경험이 애착과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성인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애착행동의 특성을 Ainsworth의 아동애착 유형과 유사하게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의 세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유형과 부모 및 연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정한 애착유형인 회피형과 양가형 집단은 안정된 애착유형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를 바람직하지 않게 기술하였으며 애인관계에서도 만족감이 낮고 연애기간도 짧았다고 보고

하였다. Hazan과 Shaver (1987)가 사용한 척도는 단일문항의 자아보고형 애착 척도로서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을 강제 선택하는 범주 척도이다. 후에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Likert-type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를 기초로 해서 좀 더 상세하며 3차원의 연속 척도인 성인애착척도(AAS)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의존, 불안, 친밀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형은 친밀과 의존의 점수는 높으나 불안의 점수는 낮고, 불안유형은 불안이 높으나 의존과 친밀의 점수는 중간 정도이며, 회피형은 친밀, 의존, 불안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atholomew와 Horowitz(1991)는 4범주 로 된 애착유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애착 유형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관계안정형(긍정적 자신과 타인, 안정형), 불안의존형(부정적 자신과 긍정적 타인, 몰두형), 독립자립형(긍정적 자신과 부정적 타인, 해체형), 불안회피형(부정적 자신과 타인, 공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애착유형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40-50%내외),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별 분포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김광은, 2004).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부모 애착 안정성과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애착특성과 성별에 따라 일반적인 대인관계 양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대인관계

관계란 심리발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관계란 사회적 맥락이나 성별 등에 따라 관계의 표현과 패턴 및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인관계는 사회 속의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아(self)를 구성하게 된다. 서구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많은 학자들은 자아를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적 정체성(core, persistent, individual identity)”으로 보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해 왔다(Bohan, 2002). 그러나 일찍이 James(1890)의 사회적 자아개념이나 Mead(1934)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의 포스트 모던적 사고에서는 자아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관계라는 과정(process)과 전적으로 통합되면서 존재한다고 본다(Bohan, 2002). 즉 자아는 개인 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사람들 간의 공간에 존재한다고 본다(조혜자와 방희정, 2007).

따라서 최근의 자아연구는 자아의 내적,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아의 관계적, 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아의 복잡성이 강조되면서 단일한 특성으로서의 자아의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자아가 분류되어왔는데, Sedikides와 Brewer(2001)는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자아유형들을 종합하여, 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집합적 자아로 정리하고 있다. 관계적 자아는 개인적 자아와 비교 연구되고 이론화되어 왔는데, Markus와 Kitayama(1991)는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 양식을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라 부르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 능력, 타인과 구별되

는 자아에 초점을 둔 자아정의를 독립적인 자아해석이라고 불렀다. Cross등(1997)은 동양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해석이 상호의존적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실제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 사회구성원은 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riandis, 1995).

자아해석 양식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Cross 등(1997, 2002)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서도 자아해석 양식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즉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Gilligan(1982)과 같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남성의 자아와는 달리 여성은 돌봄과 양육을 강조하는 젠더화된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 속의 자아(self in relation)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Eagly(1987)는 여성이 양육적이고 관계적이 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맡은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Baumeister와 Sommer(1997)도 Cross등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남녀 모두 소속의 욕구가 있으며, 여성만이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역시 관계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사회가 남녀에게 요구하는 특성이 달라 여성은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더 큰 집단의 관계를 선호하며 남성들이 능력을 키우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더 많은 관계망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자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성차에 초점을 둔 Gardner & Gabriel(2003)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남녀 모두 사회적 연결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연결을 정체성의 기반으로 둔다고 한다. 남녀는 기본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남녀의 상호의존적인 정체성에서 뚜렷한 특성을 보였는데 남자는 집단적 유대를 강조하고 반면에 여자는 관계적(이자 간의)애착을 강조하였다. 즉 남녀는 강조되는 상호의존의 측면들이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상호의존의 정도와 해석이 사회적 인지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과 좀 더 일치하는 것으로 주도성(agency)과 친교성(communion)이라는 고전적인 구분을 들 수 있다. 친교적 특성은 관계적인 상호의존으로 보는 반면(Bakan, 1966), 주도적 특성(경쟁적, 공격적, 지배적)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인 상호의존적 특성으로 간주된다(Baumeister & Sommer, 1997).

종합해 보자면, 인간은 모두 대인관계를 통해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녀의 사회화 과정과 역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대인관계 양식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전에 연구나 이론들은 남녀나 동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양식을 세분화하지 않고 관계적 자아라는 단일요인에 관심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와 관련된 다중 요인들을 세분해서 제작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관계양식에 대해 다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관계적 자아 검사(Relational Self Scale)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계는 자아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관계적 자아와 자아해석이란 관점에서 주로 다루

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문화의 차이나 성차에 초점을 두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 및 자아해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도 관계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지경과 김명소(2003)는 설문과 면접과 같은 경험적 접근을 통해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 특성을 파악하여, 도구성과 표현성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관계적 자아척도를 제작하였다. 도구성에서는 실리성, 독자성, 주도성, 유능성, 주체성의 5요인이, 표현성에서는 공감성, 의존성, 배려, 수동성의 4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척도를 통해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를 조사해본 결과, 남성은 도구적 차원에서 여성은 표현성 차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성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남녀 자아의 관계성(상호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ss(2002)가 만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해본 결과, 남녀 모두에게 관계성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관계성이 중요한 자아 구성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지경과 김명소(2003)가 만든 관계적 자아에서는 남녀의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폭넓게 탐색하지 못한 제한점이 언급되었다.

방희정 등(2007)이 제작한 관계적 자아검사는 관계적 자아가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맺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보고, 관계적 자아의 다중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남녀를 구분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제한해서 보기보다는 개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상황

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았다. 대인관계 양식과 관련하여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아주장을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경향성인 주도성(agency)과 자아를 개방하고 타인과 접촉하고 공감하며 협동하는 경향인 친교 차원(Bakan, 1966), 과제완수를 위한 도구적 행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표현적인 행동(Parson & Bales, 1955), 관계에서 긍정경험과 관계 회피(Frank & Brandstatter, 2002), 특히 한국인의 체면문화와 관련하여 타인의식과 눈치, 관계 중시의 7요인들과 관련된 41문항을 만들어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방희정 등(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아검사는 관계의 심리발달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자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대인관계 양상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는데 매우 적절한 도구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희정 등(2007)의 관계적 자아검사를 통해 대인관계 양상이 애착과 성별에 따라서 다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특성 중에서도, 모와의 애착 안정성, 애착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gender) 차이에 따라 성인들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양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먼저 성인애착과 관련된 다수의 검사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및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3범주와 4범주 성인애착유형검사를 비롯한 애착관련 검사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2.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 성인애착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4. 일반적인 대인관계 양식이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 1. 예비연구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 126명(남자 51명, 여자 75명)에게 애착유형 및 애착 관련 검사들을 실시하여 성인 애착유형검사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측정도구

애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애착과 관련된 척도들 간에 상호상관 정도,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주 사용되는 성인애착 관련 척도들 간에 상호 상관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애착 관련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

#### AAS)

Collins & Read(1990)는 Hazan & Shaver(1987)가 만든 3범주의 성인 애착척도를 기초로 18 문항의 연속문항으로 만든 애착척도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순영(1999)이 번안하여 김재희 논문(2000)에 실린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척도(AAS)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의존 6문항, 불안6문항, 친밀 6문항으로 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 상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성인 애착의 유형으로 안정형은 친밀과 의존의 점수는 높으나 불안의 점수는 낮고, 불안 유형은 불안이 높으나 의존과 친밀의 점수는 중간 정도이고, 회피형은 친밀, 의존, 불안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상관분석에 사용된 AAS척도의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 a)는 의존요인이 .71, 불안요인은 .67, 친밀요인은 .73이었다.

####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 유형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관계안정형(긍정적 자신과 타인), 불안회피형(부정적 자신과 타인), 불안의존형(부정적 자신과 긍정적 타인), 독립자립형(긍정적 자신과 부정적 타인)으로 구별한 척도이다. 먼저 관계안정적, 불안회피적, 불안의존적, 독립자립적 애착양식을 각각 설명하는 문장을 네 가지 제시하고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 유형을 선택하게 한다. 그런 다음,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한다.

분석결과,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하는 유형을 선택한 문항(범주점수)과 네 질문에 대해 각각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한 결과(연속점수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옥정(1997)이 변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부모 애착안정성만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25개의 동일한 문항으로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관분석에 사용된 부모애착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모애착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거부민감도**

거절이 가능한 18가지의 대인관계 상황을 Downey와 Feldman(1996)이 만든 척도로 선택하여 피험자들이 2가지 차원에서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대답하도록 하는 척도이다; (a)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정도(거부 불안감)와 (b)수용이나 거부에 대한 기대(거부에 대한 기대)를 6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해서 거부민감도를 산출한다. 상관분석에 사용된 거부민감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이었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97)의 자존감 척도는 원래 6점 척도로 표시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문항 중에서 해석상 문제가 드러난 부정 문항 한 개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5개의 부정 문항을 모두 빼고 긍정문항 5개만 선택하였다. 상관분석에 사용된 자존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이었다.

**결 과**

**애착유형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Ba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성인애착유형(연속점수)과 성인애착척도(AAS)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 부모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도 및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atholomew와 Horowitz의 관계안정형은 성인애착척도(AAS)의 불안요인과 부적 상관( $r = -.271, p < .01$ ), 친밀요인과 정적 상관( $r = .202, p < .05$ )을 보였다. 불안회피형은 성인애착척도(AAS)의 불안요인과 정적 상관( $r = .300, p < .01$ ), 친밀요인과 부적 상관( $r = -.236, p < .05$ )을 보인 반면에, 불안의존형은 불안( $r = .345, p < .01$ ) 및 의존요인과 정적 상관( $r = .232, p < .05$ )을 보였다. 독립자립형은 성인애착척도(AAS)의 세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과의 상관도 보이지 않았고, 4범주의 불안회피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91, p < .05$ ).

아울러 Ba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중에서 관계안정형만 모애착 안정성( $r = .258, p < .01$ ) 및 자존감( $r = .319, p < .01$ )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안회피형은 거부민감도와 정적 상관을( $r = .200, p < .05$ ), 자존감( $r = -.266, p < .01$ )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요약해볼 때, Ba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성인애착유형은 성인애착척도(AAS)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의존, 불안, 친밀요인), 부모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도,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타당성이 적절히 지지되었다. 4범주 애착유형 중에서 관계안정형, 불안회피형, 불안의존형은 성인애착척도(AAS)의 세 요인(의

표 1. 애착관련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애착	관계 안정	불안 회피	불안 의존	독립 자립	부애착	모애착	거부 민감도	AAS 의존	AAS 불안	AAS 친밀	자존감
관계안정		-.348**	-.285**	-.033	.179	.258**	-.166	.002	-.271**	.202*	.319**
불안회피			.016	.191*	-.126	-.186	.200*	.083	.300**	-.236	-.266**
불안의존				-.092	-.041	.042	.328*	.232*	.345**	-.084	-.115
독립자립					-.020	.034	-.198*	.088	.018	-.127	.059
부애착						.731	-.143	-.242**	-.184*	-.113	.331**
모애착							-.218*	-.176	-.182	-.183	.313**
거부민감도								.082	.258**	-.029	-.550**
AAS의존									.356**	.167	-.172
AAS불안										.023	-.251**
AAS친밀											.024
자존감											

\* $p < .05$ , \*\* $p < .01$ , \*\*\* $p < .001$

존, 불안, 친밀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독립자립형은 성인애착척도의 3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범주 성인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회피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독립자립형은 불안회피형과 뚜렷이 구분되는 여러 특성들을 나타내는 점으로 미루어, 독립자립형은 3범주 척도에서는 분류되지 못한 독특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3범주보다는 4범주 애착유형 모델이 성인기 애착을 좀더 민감하게 설명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하여(장휘숙, 1997; Brennan 등, 1991; 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는 4범주 성인애착유형을 애착유형모델로 선택하였다.

## 연구 II

## 방 법

### 연구 대상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4범주 성인애착유형검사, 부모애착척도, 관계적 자아검사를 서울시내 남녀 529명에게 실시하였다. 결측치를 제하고 총 511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 대상의 구성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99	35	40	39	213
여	144	62	56	36	298

측정 도구

부모애착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성인애착 척도

관계적자아검사(Relational Self Scale)

방희정 등(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관계적 자아는 다면적이고 구성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다중 자아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었다. 최종판은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41 문항의 관계적 자아검사를 사용하였다. 관계적 자아검사는 공감-배려(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 조화와 배려를 중시하는 태도), 지지경험(관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받음), 주도성(자기주장성,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경향), 관계회피(관계가 서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림), 타인의식(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도구적 관계(관계에서 실제적인 도

움, 힘, 유익을 얻으려는 경향), 관계중시(다른 사람이나 관계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의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적 자아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맺는 도구가 되므로, 관계적 자아검사(2007)를 통해서 개인의 대인관계양식을 다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관계적 자아검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예비 41문항일 경우 .81이었다.

분석 방법

SPSS (12.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이원변량분석, 이원 다변량분석(two 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 모 애착안정성에 대한 성인애착유형별, 성별 차이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성인애착유형별, 성별 차이 검증을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부,모와의 애착

표 3. 부, 모 애착안정성에 대한 애착유형별, 성별 차이검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scheffe
부애착 안정성	애착유형별(A)	8.09	3	2.70	9.37***	1 > 2, 3, 4
	성별(B)	.20	1	.20	.69	
	A*B	1.81	3	.61	2.10	
모애착 안정성	애착유형별(A)	8.46	3	2.82	9.66***	1 > 2, 3, 4
	성별(B)	.27	1	.27	.92	
	A*B	1.37	3	.46	1.56	

\* $p < .05$ , \*\* $p < .01$ , \*\*\* $p < .001$

주1. 관계안정형 2. 불안회피형 3. 불안의존형 4. 독립자립형

안정성에서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부, 모에게서 모두 나타났다(부 $F(3,479) = 9.37$ , 모 $F(3,479) = 9.66, p < .001$ ). 반면에 성별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주효과가 나타난 성인애착유형에 대해 *scheffe* 사후검증법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안정형의 애착안정성 평균(부 $M=3.66$ , 모 $M=3.71$ )이 다른 애착유형들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불안회피형(부 $M=3.28$ , 모 $M=3.33$ ), 불안의존형(부 $M=3.47$ , 모 $M=3.52$ ), 독립자립형(부 $M=3.43$ , 모 $M=3.48$ )의 애착안정성 평균 간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6.939, p > .05$ ).

**부, 모 애착안정성 정도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대인관계 양식에 대한 애착안정성 정도별, 성별 차이 검증을 위해서 이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 모 애착안정성 점수는 상위 30%와 하위 30%의 고저집단으로

각각 나누었다.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분산 검증결과, 영가설이 수용되어 동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부의  $\text{Box}'M = 30.46$ , 모의  $\text{Box}'M = 41.76, p > .05$ ). 표 5에서 보듯이 부, 모 각각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라 관계양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부 $F(1,317) = 3.83$ , 모 $F(1,317) = 4.99, p < .01$ ).

애착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속변인은 공감배려, 긍정경험과 관계회피였고( $p < .01$ ), 모의 애착안정성에서는 관계중시도 다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즉 부모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공감배려와 긍정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관계회피를 적게 하였다.

성별 차이에 따라 관계양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남 $F(1,317) = 2.50$ , 여 $F(1,317) = 2.52, p < .05$ ).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속변인은 긍정경험( $p < .01$ )과 도구적 관계였으며( $p < .05$ ),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경험을 더 많이 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도구적인 관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 정도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표 4. 성인애착 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

	성별	애착유형(범주점수)				계	df	$\chi^2$	p
		관계안정형	불안회피형	불안의존형	독립자립형				
	남자	95	32	48	28	203			
	여자	162	36	63	23	284	3	6.939	.074
	계	257	68	111	51	48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부,모 애착안정성 정도와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양식의 차이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F값		단변인 F	
		부애착	모애착	부애착	모애착
부,모 애착 안정성 고저집단	공감배려			16.08***	20.46***
	긍정경험			14.39***	16.39***
	주도성			.15	1.18
	관계회피	3.83***	4.99***	10.84***	12.83***
	타인의식			.26	.05
	도구적 관계			.04	.39
	관계중시			2.44	4.95*
	성별	공감배려			1.52
긍정경험				6.93**	6.46**
주도성				2.03	2.65
관계회피		2.50*	2.52*	.04	.07
타인의식				1.50	1.14
도구적 관계				6.54*	5.43*
관계중시				.65	1.33
부, 모 애착안정성*성별		공감배려			1.968
	긍정경험			2.941	3.47
	주도성			.148	1.30
	관계회피	0.78	0.91	2.462	1.02
	타인의식			.213	.11
	도구적 관계			.005	.03
	관계중시			.620	.43

\*p<.05, \*\*p<.01, \*\*\*p<.001

성인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6에서 보듯이 애착유형에 따라 관계 양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477) = 7.01, p < .001$ ).

대인관계 양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들 간에 관계중시( $P > .05$ )를 제외한 모든 종속변인에서

애착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시된 그림 1은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별 차이에 따라 관계양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인 측정치의 평균벡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1,477) = 3.99, p < .001$ ),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종속변인은 긍정경험 ( $p < .01$ )과 도구적 관계로( $p < .05$ ), 이는 애착안

표 6.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양식의 차이검증 (n=321)

독립변인	종속변인	F	단변인 F
애착유형 (관계안정 n=256, 불안회피 n=68, 불안의존 n=110, 독립자립 n=51)	공감배려		13.990***
	긍정경험		9.951***
	주도성		7.812***
	관계회피	7.01***	16.267***
	타인의식		7.290***
	도구적관계		3.035**
	관계중시		1.662
성별 (남:203, 여:282)	공감배려		1.52
	긍정경험		6.93**
	주도성		2.03
	관계회피	3.99***	.04
	타인의식		1.50
	도구적관계		6.54*
	관계중시		.65
애착유형 * 성별	공감배려		2.044
	긍정경험		1.369
	주도성		1.988
	관계회피	0.88	.208
	타인의식		.640
	도구적관계		.342
	관계중시		.665

\*p<.05, \*\*p<.01, \*\*\*p<.001

정성 정도와 성별에 따른 상기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애착유형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애착유형들 간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애착 유형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애착유형별로 어떤 대인관계 양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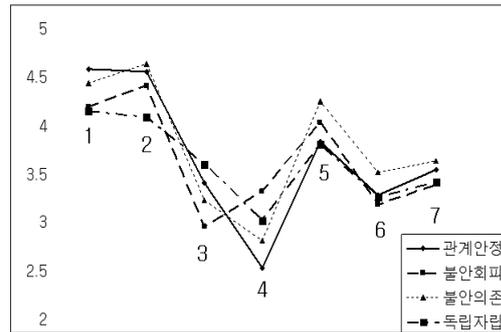


그림 1.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차이

1: 공감배려 2: 긍정경험 3: 주도성 4: 관계회피  
5: 타인의식 6: 도구적 관계 7: 관계중시

기위해서 애착유형들 간에 *scheffe*검증과 더불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1. 관계안정형 대 불안회피형: 관계안정형은 불안회피형에 비해 공감배려, 주도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관계회피 수준은 관계안정형보다 불안회피형이 높았다(p<.01)

2. 관계안정형 대 불안의존형: 관계안정형은 불안의존형에 비해 공감배려와 주도성이 다소 높았으며(p<.05), 타인의식 및 관계회피(p<.01)와 도구적 관계(p<.05)에서는 관계안정형보다 불안의존형이 더 높았다.

3. 관계안정형 대 독립자립형: 관계안정형은 독립자립형보다 공감/배려와 긍정경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p<.01), 관계회피는 관계안정형보다 독립자립형이 더 높았다(p<.01).

4. 불안회피형 대 불안의존형: 불안회피형은 불안의존형보다 관계회피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공감배려와 도구적 관계(p<.01), 및 긍정경험과 주도성(p<.05)에서는 불안회피형보다 불안의존형이 더 높았다.

5. 불안회피형 대 독립자립형: 독립자립형은 불안회피형보다 주도성이 훨씬 더 높은 반

표 7.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에서의 차이

	관계안정형 대 불안회피형	관계안정형 대 불안의존형	관계안정형 대 독립자립형	불안회피형 대 불안의존형	불안회피형 대 독립자립형	불안의존형 대 독립자립형
공감배려	4.999**	2.305*	5.136**	-2.671**	.383	3.039**
긍정경험	1.686	-1.308	4.619**	-2.440*	2.269*	4.593**
주도성	3.986**	1.974*	-1.540	-2.078*	-3.815**	-2.679**
관계회피	-6.449**	-2.892**	-3.690**	3.573**	1.687	-1.416
타인의식	-1.783	-4.622**	.241	-1.640	1.344	3.289**
도구관계	.919	-2.499*	.157	-2.628**	-.544	1.835
관계중시	.049	-.950	1.143	-1.819	-.139	1.575

\* $p < .05$ , \*\* $p < .01$ , \*\*\* $p < .001$

면( $p < .01$ ), 긍정경험은 독립자립형보다 불안회피형이 다소 높았다( $p < .05$ ).

6. 불안의존형 대 독립자립형: 불안의존형은 독립자립형보다 긍정경험, 타인의식, 공감배려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p < .01$ ), 주도성은 독립자립형이 더 높았다( $p < .01$ ).

## 논 의

본 연구는 애착관련 특성인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애착유형과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성별(gender)차이에 따라서 대인관계 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성인은 친밀 관계를 측정하는 애착유형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즉, 관계안정형에 속한 성인들은 불안회피형, 불안의존형, 독립자립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Hazan과 Shaver(1987)도 불안

정한 애착유형인 회피형과 양가형 집단은 안정된 애착유형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를 바람직하지 않게 기술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owlby의 애착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성인기에도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한다는 이론과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애착대상에 따라서는 애착안정성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별 분포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인 반면(김광은, 2004),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 모 애착안정성 정도와 성인애착유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나 애착유형과 같은 애착 관련 특성들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둘째, 일반적인 대인관계 양식에서는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애착유형과 같은 애착특성에 따라 관계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별

에 따라서 관계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부, 모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애착안정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공감배려와 긍정경험을 더 많이 하고 관계회피는 적게 하는 양상을 보였다. Barson(1998)에 따르면 애착 안정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조망을 용이하게 해서 공감을 촉진한다고 한다. 아울러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도식을 형성하여 관계에서 덜 기피적이며 긍정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애착안정성과 같은 개인특성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감하고 긍정경험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애착유형별로 대인관계 양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면, 관계안정형(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유형)은 공감배려를 잘 하고 주도적이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반면, 관계에서 회피적이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타인을 의식하거나 도구적으로 관계하는 경향이 적은 편이었다. 불안회피형(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유형)은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며 관계에서 주도성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공감배려나 도구적 관계의 수준도 낮은 편이다. 불안회피형은 거부에 민감하면서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특성 때문에 관계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불안존형(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유형)은 관계안정형 다음으로 공감배려, 긍정경험과 주도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관계안정형과는 달리 관계 특성이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거부에 민감하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는 도구적 관계의 특성을 많이 나타냈다.

독립자립형(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유형)은 대인관계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고 긍정경험이나 공감배려가 낮은 유형이다. 그러나 독립자립유형은 불안회피형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하지도 않으며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주도성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특성들로 미루어 볼 때, 독립자립형이 관계에서 기피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내면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부족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 자각에 의해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늘려나간다면 친밀감과 안정감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추측된다.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면, 긍정경험과 도구적 관계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여자들보다 도구적인 관계의 특성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남녀 간의 관계적 특성 차이에 대해서 Parsons(1955)는 남성이 과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구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표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연구에서도 도구성과 표현성을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보고 남성의 경우에는 도구성이, 여성의 경우에는 표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도구적 관계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국내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에서 긍정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Cross 등(1998, 2002)이나 Gilligan(1982)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여성들은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면서 관계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긍정경험을 남성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시, 공감배려, 주도성, 관계회피, 타인의식과 같은 영역에서는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방희정, 2007),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적이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녀의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Eagly(1987)에 따르면, 여성이 양육적이고 관계적이 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맡은 사회적 역할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녀의 대인관계 양상은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 차이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간에 뚜렷한 경계가 감소되어가는 실정임을 감안해볼 때, 긍정경험과 도구적 관계를 제외한 다른 대인관계 영역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개인적 특성이 성차보다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와 양성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대인관계 양식을 주도성과 친교성의 차원으로 분류한 Bakan(1966)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친교성과 주도성이 균형을 이루며, 주도성과 친교성 가운데 어느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나거나 반대로 너무 약할 경우 개인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Helgeson(1994)은 자아를 자아초점화된 자율성이나 타인초점화된 관계성의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율성과 관계성을 통합

한 균형잡힌 삼분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Ryan과 Deci(2003)는 자율성과 유능감을 갖고 주체가 되어 외부와 관계를 맺는 의지적인 나(능력있는, 유능한 agentic)를 가지면서도 관계적이며(relational) 다중적인 자아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에 둘러싸여 지식 기반 사회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만 충실한 채 관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관계에 대해 회피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애착 특성이나 성별요인을 비롯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관계양상을 이해하고 균형잡힌 관계를 추구하는데 많은 진보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 제한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애착특성과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관계양상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애착유형( $\eta^2=.10$ ), 애착안정성( $\eta^2=.07$ ), 성별( $\eta^2=.07$ )로 종속변인의 전체변산 중에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이 각각 10% 내외이다.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크기가 매우 높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애착특성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외에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는 관계대상에 따라서 관계 양식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애착과 관련이 높은 친밀한 관계 뿐 만 아니라 실리적 관계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는 대인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대인관계 양식은 개인 내의 안정된 특성이나 변인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소들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는 관계대상이나 상황변인과 같은

맥락적 변수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 간의 비교나 임상 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에서의 대인관계양상을 살펴본다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과 그 경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길리건 저, 허란주 역 (1982). *다른 목소리로(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재희 (2000). 지각된 양육태도와 내적작동모델 애착의 상관과 세대간 전이: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유형과 자아 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옥정 (1997).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79-793.
- 이삼연 (2000). 애착이론과 임상사회사업.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987-125.
- 이정태 (2002). *역동정신의학 (제3판)*. 서울: 하나출판사.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 (1999). 청소년용 애착양식 질문지의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81-92.
- 조혜자 (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 심리 이론과 실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조혜자, 방희정 (2007). 관계적 자아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 *학진 기초학문 육성연구 2차년도 심포지움*.
- Ainsworth, M. S., Blehar, M.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 Barson, C. D. (1998). Altruism and prosocial

-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82-316.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eister, R. F., & Sommer, K. L. (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 Bohan, J. S. (2002). Sex Differences and in the Self: Classic Themes, Feminist Variations, Postmodern Challeng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74-88.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llins, N. L., & Feeney, B. C. (2004).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shap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Evidence from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63-383.
- Cowan, G., Bommersbach, M., & Curtis, S. (1995). Codependency, Loss of Self, and Pow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221-236.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ross, S.,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399-418.
-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rickson, E.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 Fairbairn, W. (1952).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rank, E., & Brandstatter, V. (2002). Approach vs. avoidance: different types of commitment in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08-221.
- Gardner, W. L., & Gabriel, S. (2003).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Collective Interdependence. *The Psychology of Gender*.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lgeson, V.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James, W. (198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1. NY: Dover.
- Kashima, Y., Yamaguchi, S., Kim, U., Choi, S. C., Gelfand, M. J., & Yuki, M. (1995). Culture, Gender, and Self: A perspective from individualismcollectivism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25-937.
- Kernberg, O. (1982). Self, ego, affects and driv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0: 893- 917.
- Klein, M. (1946).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1946-1963*. New York, Free Press, 1975, pp 1-24.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Press.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Leary, M. R., & Tangney, J. P.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Guilford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The Free Press.
- Rosenberg, S. (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pp.23-4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D. (2003). On assimilating identities to the self: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s on internalization and integrity within culture. In Sedikides, C., & Brewer, M.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sychological Press.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 Tice, D. M., & Baumeister, R. F. (2001). The primacy of the interpersonal self. In C. Sedikides, & M. Brewer, (Eds.),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sychological Press., 71-88.
- Triandis, H.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Waters, E., & Beauchaine, T. P. (2003). Are There Really Patterns of Attachment? Comment on Fraley and Spieker. *Developmental Psychology*. 39(32), 417-422.
- Winnicott, D.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of Emotional Development*. London, Hogarth Press.

1 차원고접수 : 2007. 11. 11.  
 심사통과접수 : 2007. 12. 28.  
 최종원고접수 : 2007. 12. 30.

## **Differences in Relationship Patterns According to the Adult Attachment and Gender**

**Kyung Ran Row**

**Hee Jeong Bang**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how relationship patter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attachment security and attachment styles, focusing on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After the correlational analysis among the several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s, four-category adul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by Bartholomew & Horowitz(1991) is selected for the Korean adults. With th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the Relational Self Scale(2007) is us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 modes, which measures relational selves multi-dimensionally, taken into account of Korean culture. These Scales were administered to 529 Korean adults aging from 18 to 65years ol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Analysis of Anova (MANOVA), there a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patterns, while no differences are found in attachment security and among the four attachment styles between the sexes: The more secure attachment with one's parents, the more positive and secur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dependent variables of relationship patterns according to the attachment styles except dependency variable: Women show higher scores than men on the positive relational experiences: men show higher scores than women on the instrumental relations. These results reflect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relationship patterns during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which is in accord with the former findings. In conclusion, main effects of the attachment security, attachment styles and gender differences on relationship patterns are found but no interaction effec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emotional-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viewpoints.

*Key words : attachment security, attachment styles, relational self, relationship patterns, gender differences*